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 역학 탐색

홍윤경¹ · 손현미² · 한규민³

부산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연구원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교수²,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³

Exploration of the Family Dynamics for Parenting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Hong, Yunkyoung¹ · Son, Hyunmi² · Han, Gyumin³

¹Researcher, Busan Healthy City Project Support Group, Busan, Korea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³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mily dynamics affecting parenting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related to caring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0 married immigrant women and 10 Korean husband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24, 2016, to April 30, 2017. The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factors influencing family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four categories and eight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ole transition to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orms for parent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Conclusion:** Multicultural families experience conflicts regarding raising children due to differences in their culture and norms. Additionally, due to the unequal status at the beginning of the family formation, the performance and authority for child rearing are inconsistent, leading to increased confusion and conflict. To adjust and negotiate the family's status, norms, and roles, efforts to communicate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family are paramount. Therefore, family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applied to couples to train the husband and wife's role recognition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to support parent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Family conflict; Child, Preschool; Infant; Emigrants and immigrants;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

의 수는 약 18만 명에 이르고, 이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수도 또한 점차 증가하여 연간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다문화가족은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과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은 부

주요어: 가족 갈등, 유아, 영아, 이주민, 질적연구

Corresponding author: Son, Hyunmi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50612, Korea.

Tel: +82-51-510-8315, E-mail: hmson@pusan.ac.kr

- 이 성과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6R1C1B1014725).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2016R1C1B1014725)

Received: Dec 19, 2022 | Revised: Dec 29, 2022 | Accepted: Dec 29,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족하며[2], 이들 중 약 22%는 5년 이내에 성격 차, 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 붕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가족은 가족발달단계에서 초기의 가족형성기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역학이 변화하며 발달하게 된다[4]. 가족 역학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4], 자녀 출생과 양육은 부부 중심의 가족구조가 자녀 중심으로 바뀌면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 가족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가족의 상호작용으로 역할 수행이 상호보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은 자녀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5].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부부의 문화, 언어, 경제력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문화권의 부부가 이룬 가족에 비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을 발달시키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6,7]. 더욱이 다문화가족은 첫 자녀 양육을 통해 문화나 언어 차이로 인한 간극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갈등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하면 가족관계는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으로 변화하는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한다[8].

불안정한 가족관계는 다문화가족의 역할 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중시키며,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응과 인권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9,10]. 특히 갈등이 심한 가족은 가정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떨어뜨려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8]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른 적절한 양육과 돌봄을 잘 제공하지 못한다[11]. 이에 반해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문화가족은 영유아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과 사회적응 촉진을 돕고[12-14], 갑작스러운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 이처럼 다문화가족은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가족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자녀 양육과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가족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은 가족관계의 변화와 역학의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므로, 이러한 가족발달 과정속에서 자녀 양육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관계는 구성원의 역할기대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확립해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가족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규범에 따른 각자의 지위 및 역할을 정립하고 조정하면서 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발달해 나간다[4].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전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정, 수정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11]. 다문화가족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변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문화나 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가족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가족발달이 어려워지기도 한다[16]. 따라서 부모로의 역할전환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족관계의 지위, 역할, 규범에 대한 상호작용과 변화과정의 맥락에서 자녀 양육을 탐색하는 것은 양육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 원인을 찾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의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인한 가족 내 상호작용의 부족은 양육기간 동안 겪는 역할수행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17-19], 자녀 양육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가족의 협조를 방해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20,21]. 이와는 반대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한 다문화가족은 언어적, 문화적 격차로 인한 어려움이 점차 감소하면서 양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14,2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상호작용이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되는 가족 역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다문화가족의 가족 역학의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가족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규범, 지위, 역할과 같은 요인 간의 상호작용과 이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역학 속에서 자녀 양육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이러한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변화의 맥락 속에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며 이러한 과정이 자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을 풍부히 수집하고 관련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연구문제를 해석하는 질적연구방법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이 경험하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여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족변화와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이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관

련된 어려움의 이해를 높이고, 양육지원을 위한 실제적 전략의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가족의 규범과 역할, 지위 등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들 요인이 자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문화가족 가족 관계의 변화는 자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각각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자녀 양육경험을 탐색하고, 가족관계의 변화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시적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한국의 B시에 소재하는 4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J구, D구, SS구, SH구)와 Y시의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하에 센터 내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모집된 자들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만 1~6세 사이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0명의 여성이다. 남편은 외국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만 1~6세 사이의 영유아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남성 10명이다. 본 조건을 충족하여 모집한 참여자들은 부부가 아닌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결혼이주여성 참여자의 연령은 29~38세로 평균 32.2세이었고, 모두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유아 자녀수는 1~3명이었다. 시댁 식구와 동거하는 결혼이주여성 참여자가 3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동거했다가 분가했거나 동거한 경험이 없었다. 남편 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45.8세였으며, 외국인 아내의 한국 거주기간은 1~11년으로 다양했고, 영유아 자녀수는 1~2명이었다(Table 1).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의 적정인원은 없지만 한 그룹당 4~10명이 적절하므로[23], 총 20명의 참여자를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각각 5명씩 나누어 4개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그룹별로 인터뷰는 1회 실시하였으며,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사전에 2회의 연락을 통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하였고, 참여자에게 익숙한 다문화센터 내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연구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녹음 파일을 직접 전사했으며, 인터뷰 중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에 대해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질문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이 영유아 자녀 양육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선행논문 결과를 기반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발달에서의 주요 범주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의 가족갈등과 대처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돌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돌보면서 어떤 가족 문제나 갈등을 겪으셨습니까?’, ‘문제나 갈등이 생긴 경우 자신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문제나 갈등이 생긴 경우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자녀를 돌보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돌보면서 가족 내 협력이나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과 가족의 방식이 자녀 양육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인터뷰 도중 대상자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재질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확인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얘기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Sandelowski가 제시한 질적연구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25].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언어능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였고 면담 시 개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석 전에 녹음파일과 전사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하였으며 연구자의 현장노트, 메모 등을 분석에 포함하여 연구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에게 분석한 자료와 해석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 질적연구학회와 워크숍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year)	Nationa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Married immigrant woman duration of stay in Korea	Multicultural couple marriage period	Number of infants	Whether live with other Korean family members	
WP	MIWP1	33	Philippines	7y 9m	7y	3	No
	MIWP2	31	Vietnam	6y 8m	7y 1m	2	No
	MIWP3	33	Vietnam	6y 8m	7y	1	No
	MIWP4	32	Cambodia	8y 3m	8y 3m	2	No
	MIWP5	37	China	6y 6m	8y 6m	2	No
	MIWP6	31	Vietnam	6y 4m	6y 4m	2	Yes
	MIWP7	38	Mongolia	6y	10y	3	No
	MIWP8	29	China	7y 5m	8y 7m	2	No
	MIWP9	29	Mongolia	5y 1m	5y 7m	2	Yes
	MIWP10	29	Vietnam	5y 10m	6y 2m	2	Yes
HP	KHP1	50	Vietnam	9y 6m	9y 6m	2	No
	KHP2	33	Japan	1y	10m	1	No
	KHP3	44	Cambodia	1y 3m	4y	1	No
	KHP4	50	Vietnam	5y 2m	5y	1	Yes
	KHP5	47	Vietnam	7y 3m	7y 3m	2	No
	KHP6	48	Vietnam	6y 2m	6y 2m	2	No
	KHP7	40	Vietnam	3y 6m	4y 6m	2	No
	KHP8	50	Vietnam	6y 2m	7y	1	No
	KHP9	52	Vietnam	11y	11y	1	No
	KHP10	44	Vietnam	5y 1m	5y 3m	2	No

HP=Husband participants; KHP=Korean husbands participant; MIWP=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nt; WP=Wife participants.

발표를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제와 의미에 대한 수정작업을 반복하며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진솔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폭넓게 기술하였다. 적합성 확보를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내용에 대한 공감 정도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을 포함하려 노력함으로써 다른 연구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먼저 확인하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 중에도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참여자들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들은 분류된 내용과 자료를 계속 읽고 비교하면서 각 범주와 요인에 따른 분류가 맞는지 확인하였고, 적합하지 않으면 연구자간 회의를 통해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여 분석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다년간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깊고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질적연구 수행경험과 학회 발표경험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 과목을 이수하고 지속적으로 질적연구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철학적 관점과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연구역량을 향상시켜왔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승인(IRB No. PNU IRB/2016_102_HR)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한국어 능력의 차이를 고

려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 참여자와 다르게 이들의 언어능력에 맞춘 용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동의서를 따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면담 내용의 녹음 및 전사, 언제든지 연구를 자율적 의사로 그만둘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의 보호, 출판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녹음자료 전사 시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식별 정보는 일련기호를 부여하여 작성하고, 작성 후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쇄 처리하였다. 전사자료는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녹음자료는 전사완료 후 삭제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끝낸 후 각 참여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녹음되었고 자료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시행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했는데, 가족발달이론에 근거한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귀납적 접근을 사용하는 전통적 내용분석과는 달리 지시적 내용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개념이나 변수들을 초기의 코딩범주로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법보다 좀 더 구조화된 과정으로 분석이 진행되는 연역적 접근의 내용분석방법이다. 이러한 지식적 내용분석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나 기존의 이론에서 이미 밝혀진 개념들이나 개념범주를 새로운 연구 현상 맥락에 적용하여 개념을 타당화하거나 확장시키기 위해 적용된다[24].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지위, 역할 등의 요인은 선행 문화와 근거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들을 범주로 하여 다문화가족의 가족 역할 변화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개념의 확장 목적에 적합하여 지시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코딩에 앞서 가족관계 형성 관련 개념범주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위: 참여자가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 역할: 참여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 규범: 문화적으로 형성된 습관, 예절, 의례 등을 기반으로 가족구성원으로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방침

지시적 내용분석에는 두 가지가 분석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전사자료를 읽고 미리 결정된 범주를 통해 모든 강조된 구절을 코드화하는 방법과 미리 결정된 범주로 즉시 코딩을 시작하여 범주의 하위범주를 구성하거나 혹은 필요시 새로운 범주의 유

형을 만들어 그에 따라 하위범주를 나누는 방법이다[24].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코딩방법을 모두 이용하였는데, 자료수집 후 연구자들은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발견하여 가족구조요인으로 구분된 범주에 따라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한 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자료를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즉각적인 코딩 후 초기코드로 분류되지 않은 내용은 새 범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하위범주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후분석을 시행하였다. 범주가 결정된 후 범주별 내용을 결혼과 출산 후 영유아 자녀 양육이라는 가족 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정렬하여 가족구조적 요인들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코드별 대표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론적 범주 및 코드에 대한 확증적 근거나 반증적 근거에 관계 기술함으로써 기존 이론을 지지하면서 확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상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그들이 경험한 상호작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화하고 통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분석 내용을 수정, 정련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2).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는 부모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전환 및 재정립, 양육 경험에 따른 지위의 변화, 지위의 변화에 따른 기존 규범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발달하였다.

1. 다문화가족 부모로의 역할전환

1) 다문화로 가중된 자녀양육 역할 수행의 어려움

(1)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해 더 어려운 양육역할

결혼이주여성 참여자(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nt, MIWP)들은 출산 후 사회적 규범에 따라 여성이 주양육자로 정해지는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남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남편의 소극적인 양육 역할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양육하는 문화에서 성장한 결혼이주여성은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남편의 양육 참여에 기대가 높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양육을 아내의 영역으로 여기는 남편의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자녀 양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혼자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남편가

Table 2.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Parenting Children

Themes	Categories	Sub-categories
Role transition to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 role of parenting children aggravated by multiple cultures	· Difficult parenting role due to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 Status within a family that begins unequal due to differences in social norms and available resources
	Efforts to perform the role of parents to parent healthy children	· Efforts and limits to perform parenting roles appropriate to the status · Concern about parental roles in parenting healthy children
Establishment of norms for parent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of parenting norms	· Lack of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s according to norms · Confusion and conflict over different norms
	Changes and efforts to form new family norms	· Need for change in parenting style due to mutual cultural differences · Efforts for mutual understanding to live together as a family

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고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 과연 자신이 엄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 영유아 자녀를 양육했다.

호흡치료기 사오라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기가 그때 기침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막 울고. 지금 뭘 도와줘야 되는데 못하니깐... 의사선생님 말은 못 알아듣겠고... 그때도 혼자였죠. 남편이 안왔어요. 진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MIWP 9)

처음 와서 임신하고 1,2년 되니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뭐 읽어도 한 50%밖에 모르니깐 인터넷에서 인제... 거의 전부는 잘 안되고... (중략) ...한국에서 아기 어떻게 키우는지, 임신, 출산, 육아 막 그런 거 한국 책은 있지만 한 60% 정도 이해가 되니깐.(MIWP 4)

한국인 남편 참여자(Korean Husbands Participant, KHP) 들은 아내의 모국에 대한 제한된 정보, 부모에 대한 규범적 역할, 다른 가족의 남편 역할 등을 토대로 양육은 여성이 맡고, 자신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출산 전에는 외국인 아내의 적응을 도우려는 남편의 지지로 서로의 관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 후에는 아내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기를 바라는 남편의 입장과 양육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입장이 충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언어문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소통이 오해를 일으켜 더 심한 감정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아무 이상 없게, 이게 (아버지 역할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이제 일 잘하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놀아주고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KHP 2)

말은 할 줄 아는데 그 말에 속해있는 의미를 몰라가지고 서로가 갈등이 심한 거지, 거기에서 난 문제가 가장 많다고 봐요. 서로를 이해 못 해서, 그 말을 이해 못 해서 거기서 쌓이는 것 같더라고.(KHP 4)

(2) 사회적 규범과 가용자원의 차이로 불평등하게 시작되는 가족 내 지위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가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한국인 남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언어적 측면에서 가용자원이 제한적이어서 남편보다 낮은 지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경제력, 인적자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에서 남편보다 열세이기에 결혼초기에 많은 부분을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유식, 예방접종, 소소한 병원 방문, 어린이 집 보내기 등 모국에서는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서도 대부분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남편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다. 이처럼 결혼초기부터 형성된 불평등한 지위는 결혼이주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모국 문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지위의 불평등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반대하는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큰 문제는 남편이 다 해결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 사람이니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죠, 신랑한테. 우리는 모르니까.(MIWP 8)

어떨 때 제가 약간 베트남말로 표현할 때 있잖아요, 남편 그래서 여긴 베트남 아니야 약간 무시하는 소리 나오잖아요, 여긴 한국이야 그래서 한국 따라 이렇게 그러니깐 지금 이거 말 듣고 남편이 저한테 대게 무시하는 거 같아서, 가끔씩 기분도 안 좋아요.(MIWP 3)

한국인 남편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하여 한국문화에서 외국인 아내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이도 많은 자신이 아내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아내의 직장생활과 양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여기면 이를 강력하게 조정하려 했으며, 아이의 건강이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본인이 갖고자 하였다. 아내가 적응함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소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내에게 점차 넘겼지만, 경제권을 가진 남편의 높은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내가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고 한국 실정도 더 잘 알고, 또 세상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할 부분은 내가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KHP 1)

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지만 제 입장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도 어떤 간단한 일에서는 아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죠, 제가.(KHP 1)

2)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노력

(1) 지위에 맞는 양육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과 한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자녀 양육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이를 위해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 같은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어린이집 선생님, 친구들과 같은 접근하기 쉬운 인적자원을 활용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자신의 양육관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거부하기도 하면서 엄마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히 한국 양육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한국 엄마들이나 의료진을 통해 얻는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여전히 편하지 않은 한국어보다는 모국어로 검색하여 정보나 동영상 자료를 주로 찾게 되어 한국에서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도 좀 알아들으니깐 그냥 따라 하지는 않고, 내 방식대로 양육하도록 애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이기지 못해요. 이제는 제 방식으로 키우고 있어요.(MIWP 3)

이제 우리 언어로 나오는 그런 책은 거의 없잖아요, 몽골에는 있지만. 한국에서 아기 어떻게 키우는지, 임신, 출산, 육아막 그런 거 한국책은 있지만 봐도 한 60% 정도 이해가 되니깐...(MIWP 4)

한국인 남편들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아내가 문화나 언어 차이로 하지 못하는 엄마 역할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초기에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적응할 때까지 아내의 역할 수행을 도우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아내의 적응에 긴 시간이 필요했으며 아빠의 양육 역할 참여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원래 양육은 아빠 역할이 아닌 추가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인 남편은 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꼈다. 이와 동시에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수용하였다.

와이프는 한국말이 안 되니까 딱 날짜 맞춰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것부터 해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이 좋냐, 이래가지고... 솔직히 다 힘들었죠. 제가 일도 해야 되지, 그런 것 찾아야 되지. 엄마 노릇까지 하려니까... (중략) ... 애기를 양육하는데 남자가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도 해야죠, 양육에 관심이 없다보니 하기도 싫고, 힘들고. 만약 와이프가 한국인이었다면 당연히 저도 보통 사람처럼 별로 안했겠죠.(KHP 3)

(2)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에 대한 고민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자녀의 사회화를 돕기 위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모든 참여자들은 알고 있었고,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고민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걱정했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업을 위해 엄마 도움이 필요한데, 자신의 언어능력이나 문화 차이로 잘 돕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자신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엄마라는 지위를 존중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가 한국인 가정의 자녀

에 비해 뒤처지거나 자신처럼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 불안해했다.

애가 한글 같은 거 조금 알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글 순서 쓰기 그런 거...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것도 좀 걱정되고... 그리고 한국 수업...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깐... 그런 방면에서 애기를 어떻게 하면 더...(MIWP 5)

만약 학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 어떻게 접촉하고 하는지... 보니까 한국에는 학부모들 만나서 모임도 있고 하던데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니깐. 만약 모임에 가도 같이 통할 수 있을지... 애기 친구 사귀는 것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MIWP 5)

한국인 남편들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자녀 공부를 돕는 것과 같이 외국인 아내가 수행하기 힘든 역할을 가능한 자신이 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한국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성이나 한국어 능력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외모나 언어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적응을 못할까, 조금씩 외모나 이런 부분이 다르니까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KHP 1)

전 솔직히 한국에 사니까 이중 언어 바라지 않거든요. 한국어만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선생님한테 들으면 우리 애가 또래보다 좀 늦다 이런 말 들으면 전 마음이 아파요.(KHP 3)

2. 자녀양육에 대한 다문화가족 기반의 규범 형성

1) 양육 관련 규범에 대한 상호이해의 부족

(1) 규범에 따른 양육방식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은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신과 같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양육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차이를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섭섭해 했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도와주는 등의 한국 양육방식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애들 키울 때 너무 많이 엄마, 아빠, 할머니.. 다 해 주잖아요, 우리 몽골에서는 애들 어느 정도만큼 다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지도하는데...(MIWP 2)

울 동남아 사람들은 육고기 좋아해요, 많이. 근데 한국에는 김치, 야채 그런 거 좀 많이 먹이라고 하는데... 보통 애기들은 나물,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저는 강요하진 않는데 안 먹으면 먹기 싫다하면, 애기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계속 잔소리 들으니...(MIWP 3)

한국인 남편은 아내가 아이의 능력에 맞추지 않는 육아, 억박지름이나 체벌을 통한 자녀 훈육, 아이의 청결이나 안전에 소홀한 행동 등 양육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수정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을 바꾸기를 요청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자신의 방식이 옳으니 적용하라고 맞서는 아내와의 대화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가족 갈등으로 이어졌다.

애가 위가 짧으니까. 집에서 우물우물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되는데. '애가 30분, 1시간씩 먹는다.' 아니 빨리 빨리 먹으면 안 좋으니 당신이 힘들어도 천천히 먹고 해야지... 하면 막... '당신이 먹여봐!' 와이프가 이렇다고. 거기서 갈등이 생긴다고. 아니 당신은 베트남에서도 그리 하나 하면, '어, 베트남에서는 원래 빨리 잘 먹어!' 한니까... 더 이상 말이 안되고...(KHP 8)

(2) 다른 규범에 대한 혼돈과 갈등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한국인 가족이나 자녀에게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경험 후에는 자녀에게 예절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또 왜 자신에게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한국 가족들은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자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속상해했다.

우리 집에서 그... 대화할 때 어머니하고 신랑이 '맞나?' 하고 반말로 하니깐, 저도 그냥 따라 반말한 건데, 그.. 어른한테 높임말 해야 해요. 근데 집에서 다 반말하니깐 저도 따라 했어요... (중략) ...자꾸 그리 대화하면 저도 높임말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애들도 그렇게 따라하고...(MIWP 6)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모국에서 관찰한 사항이나 한국에서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내의 모국보다는 한국의 예절이 더 낫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아내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안 좋게 보이고, 한국 예절을 따르려 하지 않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내의 방식이나 의견 차이를 좁히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도 했다.

어머니가 어디 가셨다 들어오시면 와이프는 뭘니까, 보통 들어오면 인사하고 이래하는데, 고마 앉아있거나 책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세로... (중략) ...와이프 얘기는 가족끼리,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와서 인사해도 가족같이 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안 한다고.(KHP 3)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치라는 것이 없어요, 좀... 사람이... 만약 내가 결혼해서 베트남에 갔다면 나는 베트남법을 따르지, 당신도 여기 왔으면 한국 법을 알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할 필요 없다,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이런 식이에요.(KHP 9)

2) 가족의 새로운 규범 형성을 위한 변화와 노력

(1) 상호문화 차이로 인식한 양육방식 변화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남편들에 비해 처음부터 두 문화간 양육방식이나 규범의 비교가 가능했다. 그래서 남편의 규범이나 양육방식이 무조건 바람직하지는 않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다. 초반에는 남편보다 지위가 낮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남편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점차 한국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양육역할이 명확해지고 능력도 향상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위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결정권이 강해져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불합리한 규범으로 인한 양육방식을 거부하거나 변화시켜 점차 자신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저도 좀 그냥... 얘기 아빠랑 의논하고... 얘기 아빠 생각도 있고 제 생각도 있으니까. 어떨 때 말 안 들으면 제 방식으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뒤에 일은 뭐...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죠.(MIWP 2)

제가 지금 얘기 키우니까 그런 거 안해요. 자기 먹고 그릇 갖다 놓도록 교육 시켜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애 절대 그렇게 교육 안 할 거예요, 제 방식으로 시켜야 해요.(MIWP 8)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 다른 문화와의 비교가 힘들었고, 자신에게 익숙한 규범이나 양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일부는 서로 다른 규범과 양육방식으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아내의 방식도 자녀양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규범대로 양육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엄마가 이래 키우니까 아... 나도 해먹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재우고 이러니까 잠도 잘 자고 이러더라고.(KHP 1)

아내 방식을 이해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 해봤자 나만 피곤해지지. 그냥 한 마디만 하고 정 안 된다 하면 내가 그냥 아이를 목욕시켜요.(KHP 6)

(2)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의 노력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은 가족들이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여전히 많음을 알고 있지만 타국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 또한 가족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적응과정에서 남편과 양육방식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갈등도 결국 한국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남편을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도 하였다.

근데 좀 살아보니깐 남편, 그런 뜻(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요. 지날수록 이해할 수 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에 사니까 나중에 애들 키우는 거 엄마가 쥔 중요하잖아요.(MIWP 8)

학원도 보내야 되고... 다 돈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것에 대해 남편과 얘기하고 맞춰가고. 요즘 우리 신랑이 사업 시작했는데 힘들어서 좀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제가 좀 일해야지 생각했어요.(MIWP 2)

한국인 남편들은 서로의 문화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아내의 모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내도 변화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인 남편들은 의사소통을 제외한 어려움은 모든 부부가 겪는 같은 과정임을 깨달았지만, 앞으로도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

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일부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과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서 각자의 생활과 양육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도 했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 부족이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나갔다.

지금도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한 해 한 해 마누라가 달라져. 나도 참으면서 해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사나 외국 사람으로 사나 언어소통이 좀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가 될 거 없는 것 같더라고.(KHP 4)

뭐 한 번만 얘기해도 잘 안 해요, 뭐 어차피 도와달라 해도 얘기 많이 해야 해요, 근데 뭐 많이 얘기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번만 얘기하면은 안 해, 안 해주면은 끝이요. 항상 포기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MIWP 10)

대부분이 안 좋은 얘기뿐이라... 나도 그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중략)
...지금도 약간 힘들어요. 지금도.(한숨)...(KHP 5)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은 문화와 언어 차이로 상호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로의 역할 전환을 하면서 지위 조정에 따른 양육역할 정립, 다른 규범에 대한 양육방식의 차이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다문화가족 부부는 건강한 자녀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협력하고, 역할기대와 수행을 조정해 나가며 가족발달을 이루어나갔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족 내 지위에 따른 역할과 자신들이 가진 규범과 역할기대의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여전히 갈등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각자의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참여자들은 각자의 양육역할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 부모로의 역할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서로가 가진 역할기대와 역할 수행에 대한 갈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부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제결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서로의 역할기대가 역할 수행과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26,27]. 가족집단은 형성기부터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구

성원에 대한 역할기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정립하면서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부모로서의 역할전환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대처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8]. 하지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은 상호이해의 부족, 부모로의 역할전환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 편중된 양육역할 부담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해결되지 않은 가족갈등의 축적은 오해를 유발하여 의사소통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양육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상대방의 역할기대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28].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형성기부터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가족 지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가부장적 규범과 한국에서의 경제력과 가용자원 차이로 가족 내 지위가 불평등하게 시작됨으로써 양육역할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이 수행하지만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은 한국인 남편이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정착한 문화권에서 각자가 가진 자원의 차이로 정립되는 지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29].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생활 적응 전까지 문화와 언어의 제한으로 양육행위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양육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떨어진 양육자신감은 이후 적절한 양육수행을 저해한다[30].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권한으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과 같은 양육 이행이 어려우면 주양육자인 엄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영유아 시기의 전반적 성장발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가족 내 지위와 역할의 차이로 인한 양육문제를 이해하고, 양육의 역할 수행과 권한의 균형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부모교육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한다.

결혼 초기에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지위와 권한과는 달리 높은 역할기대로 벌어진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 양육의 역할 수행이 늘어나고 능력이 향상되면서 가족 내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만으로는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가족발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시간

이 지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남편으로부터 더 많이 부여받게 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문화권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족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10]. 하지만 양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 및 역할 변화는 여성의 역할이 양육으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남편이 양육을 자신의 역할로 여기지 않아 초기의 양육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게 양도하려는 점에서 가족의 긍정적 변화로만 볼 수는 없다. 가족발달은 가족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인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발생함으로 이루어지지만[4],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나 상호작용보다는 양육역할 수행능력의 향상을 통해 지위의 변화를 이끌어낸 측면이 보다 커서 양육역할 수행을 통한 변화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와 발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국의 남편이 외국인 아내에게 공평한 지위를 부여하고 합의를 통해 양육역할을 조정, 배분함으로써 남편의 자원 활용으로 외국인 아내의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22].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자국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 수행과 아내에 대한 가족 내 공평한 지위 및 권한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도 타 문화의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인 경험이 없는 한국인 남편에 비해 규범의 차이에 따른 양육 방식의 차이와 조정의 필요성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결혼이주여성 은 두 문화를 비교하며 불합리한 방식을 인지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과 의논하며 더 좋은 방식으로 변화하거나 수용하기도 하며 그들 가족만의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 부부가 서로의 합의로 가족에게 더 좋았다고 믿는 서로의 양육방식을 결합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31]. 다문화가족이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합의된 가족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정체성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8,29,32].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은 서로의 다른 규범으로 인한 양육방식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상대의 방식과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오히려 양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알게 되는 계기로 여긴다면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가족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지지를 위

해서는 이러한 가족 변화와 발달과정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기반으로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인식과 갈등대처를 위한 전략을 가족간호증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변화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부부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나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일가족의 부부 모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능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참여 대상자 중 일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여성과 결혼한 남편이 다수 포함되어 해당 문화의 성향이 더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 내 지위에 따른 역할, 규범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족관계의 변화과정을 탐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구체적 원인과 해결방안을 가족관계의 맥락 내에서 파악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양육지원과 부모 양육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전략도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가족관계 변화의 중요 요인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가족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 문제와 가족갈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아시아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 10명과 한국에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아시아 결혼이주여성 10명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가족발달이론에 기반하여 가족관계의 주요 개념을 범주로 한 지시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은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해 양육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규범과 가용자원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하게 시작된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지위로 자녀 양육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자신의 양육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에 열중했지만 지위와 권한의 간극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다.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의 규범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한 혼돈과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방식을 조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며 비로소 가족은 자신들의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족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고 갈등이 깊어진 가족에서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불일치한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도 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다문화가족의 양육지원과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처전략 기술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만이 아닌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접근의 간호가 수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Study conception and design acquisition - HY and SH; Data collection - HY, SH and H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 HY, SH and HG; Drafting and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 HY, SH and HG.

ORCID

Hong, Yunkyung <https://orcid.org/0000-0003-1504-3946>
 Son, Hyunmi <https://orcid.org/0000-0001-8226-1463>
 Han, Gyumin <https://orcid.org/0000-0002-2099-4562>

REFERENCES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8 [Internet]. Seou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cited 2022 December 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8/7/index.board?bmode=read&aSeq=378503&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2. Kim HR, Yeo JY, Jung JJ, Baek SH. Health statu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health policy recommendation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Report No.: 2012-10.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8 [Internet].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cited 2022 December 12].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20
4. Martin TF, White JM. Family Development Theory. In: Adamsons K, Few-Demo AL, Proulx C, Roy K, editor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ologies. Switzerland: Springer Cham; 2022. p. 179-201.
5. Kim IG. Family relations. Paju: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08.
6. Jang EK, Ryu JA. A qualitative study on husbands' experience in marital conflict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critical incident, development and coping-.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5;22(2):117-33. <https://doi.org/10.12653/JECD.2015.22.2.0117>
7. Jeong HW. Successful marriage adaptation of Korean husbands who are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5):337-56. <https://doi.org/10.5392/JKCA.2017.17.05.337>
8. Maynigo TP. Intercultural couples and families. Diversity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Ethnicities, sexualities, and socio-economics. Santa Barbara, CA: Praeger; 2017. p. 309-36.
9. Kim YS, Lee AR, Hwang JM.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lated policy implications.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2016;31:90-100.
10. Bustamante RM, Nelson JA, Henriksen Jr RC, Monakes S. Intercultural couples: Coping with culture-related stressors. *The Family Journal*. 2011;9(2):154-64. <https://doi.org/10.1177/1066480711399723>
11. Kim HR. Health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task.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2013;185:1-8.
12. Lim HJ. A study of the effects of children's variables, family interaction variables, and parenting variabl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8;25(1):183-206. <https://doi.org/10.22155/JFECE.25.1.183.206>
13. Kim SS.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019;11(4):69-85. <https://doi.org/10.36431/JPE.11.4.4>
14. Kuramoto M, Koide T, Yoshida T, Ogawa E. Raising multicultural children in Japan: A mixed methods examination of parent-child-society dynamic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2017;46(4):360-84. <https://doi.org/10.1080/17475759.2017.1355839>
15. Choi M, Bang K. Quality of pediatric nursing care: concep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6):757-64. <https://doi.org/10.4040/jkan.2010.40.6.757>
16. Yoo EK, Kim HJ, Kim MH.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42(2):171-80. <https://doi.org/10.4040/jkan.2012.42.2.171>
17. Bhugun D. Intercultural parenting in Australia: managing cultural differences. *The Family Journal*. 2017;25(2):187-95. <https://doi.org/10.1177/1066480717697688>
18. Xiang Y, Colson T. Childrearing experiences in cross-national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Whole Child*. 2018;3(1):

- 4-18.
19. Wali N, Renzaho AM. "Our riches are our family", the changing family dynamics & social capital for new migrant families in Australia. *Plos One*. 2018;13(12):e020942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9421>
 20. Choi C, Hums MA, Bum CH. Impact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juvenile mental health: eSports online game addiction and delinq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8;15(12):2850. <https://doi.org/10.3390/ijerph15122850>
 21. Koo HJ, Shin HW, Lee YJ. Atypical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rural area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12;55:355-64. <https://doi.org/10.1016/j.sbspro.2012.09.513>
 22. Heikkila E, Rauhut D. editors. *Marriage migration and multicultural relationships*. Turku, Finland: Institute of Migration; 2015.
 23. Flick U. *Quali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uhrung*. 4. Aufl., Hamburg: Rowohlt. 2007.
 24. Hsieh HF, Shannon SE.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5;15(9):1277-88. <https://doi.org/10.1177/1049732305276687>
 25.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986;8(3):27-37.
 26. Ayika D, Dune T, Firdaus R, Mapedzahama V.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post-migration family dynamics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Sage Open*. 2018;8(4):2158244018811752. <https://doi.org/10.1177/2158244018811752>
 27. Kelly S. editor. *Diversity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ethnicities, sexualities, and socioeconomics*. ABC-CLIO; 2016 Dec 12.
 28. Kuramoto M. Strength of intercultural couple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qualitative study of intermarried parents in Japan. *Marriage & Family Review*. 2018;54(6):549-64. <https://doi.org/10.1080/01494929.2017.1403995>
 29. Bhugun D. Parenting advice for intercultural couples: a systemic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7;39(3):454-77. <https://doi.org/10.1111/1467-6427.12156>
 30. Cho HH, Park ES, Oh WO. Maternal conflict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6):617-29.
 31. Moriizumi S. Exploring identity negotiations: an analysis of intercultural Japanese-US American familie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011;11(2):85-104. <https://doi.org/10.1080/15267431.2011.554359>
 32. Lee SM, Chun WY.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upon child's ego-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3;22(1):33-54.